

성, 사회경제적 지위와 인터넷 이용: 2004년과 2009년 생활시간조사자료의 활용

정재기*

본 연구는 5년의 시차를 둔 생활시간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정보화의 확산에 따른 인터넷 이용행태의 변화를 추적하고자 한다. 인터넷 활용격차에 대한 논의와 기술혁신과 정보격차의 수준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인터넷 이용빈도, 인터넷 활용의 다양성, 그리고 정보지향적 및 검색지향적 인터넷 활동시간의 변화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추적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는 첫째, 전반적으로 인터넷 이용 빈도는 증가하였으며 인터넷 활용의 다양성 역시 증가하였다. 둘째,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인터넷 이용격차가 한국사회에서도 발견되었다. 셋째, 인터넷 이용의 빈도와 다양성이 전반적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별에 따른 인터넷 활용패턴의 차이는 오히려 확대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인터넷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점 커짐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보화의 진전이 자동적으로 정보이용격차의 감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핵심단어: 인터넷, 생활시간조사, 정보격차, 컴퓨터 게임, 검색

I. 들어가며

인터넷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정치적 참여, 기업간 경쟁 등 공적인 영역 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의 형성 및 유지, 문화 콘텐츠의 생산 및 소비 등 사적인 삶의 양식에 있어서도 커다란 변화를 낳고 있다. 한국은 1990년대 중반부터 국가전략적인 차원에서 정보화를 추진한 결과, 상대적으로 정보화의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 결과 현재 5가구 중 4가구가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3세 이상 국민의 인터넷 보급률은 2000년 44.7%에서 2010년 77.2%에 달하고 있다(행정안전부, 2010). 또, 2009년을 기준으로 할 때, 하루 2시간 이상 인터넷을 이용하는 국민이 절반에 가까운 49.3%에 달

* 숭실대학교 정보사회학과 교수 | jaekijeong@gmail.com

하는 등 인터넷이 일상생활에 차지하는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정보화진흥원, 2010).

그러나, 정치참여나 경제활동, 사회적 교제나 문화적 향유에 있어서 인터넷이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할수록, 인터넷에 접근하지 못하거나,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이들이 경험하는 불리함은 점점 더 커지게 될 것이다. 더욱이, 이들이 기존의 위계질서 내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구조적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면, 기존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정보화와 함께 심화되어 재생산될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화를 추진하는 국가들은 사회의 각 계층에 일정 수준 이상의 정보화 기기에 접근 활용 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정보화로 인해 야기되는 다양한 차원의 불평등, 즉 정보격차를 완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의 필요성 때문에, 다양한 기관에서 국민들이 정보통신기술을 사용하는 정도와 다양한 계층별 차이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정보문화진흥원, 2010). 이들 조사들은 일반적인 설문응답에 기초하여 인터넷 기기보유, 이용목적, 이용시간 등을 측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설문응답에 기초하여 특정행위의 행동시간을 묻는 것은 편이(Bias)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행위자는 이들 행동을 연상하고, 행동시간을 대체적으로 계산한 후, 다시 이를 하루나 일주일 등 특정단위로 계산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 연구들은 대체적으로 노동시간이나 가사노동 시간 등을 과대 추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Robinson and Godbey, 1997; Lee and Waite, 2005; 유성용, 2008). 이러한 설문항목에 기초한 시간추정의 대안이 시간일지의 방법이다. 응답자들은 일정한 시간간격으로 나누어져 있는 일지에(보통 어제의) 24시간 동안 자신이 종사한 행동을 적게 하는 방법으로, 상대적으로 '기억편향(Recall Bias)'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보고하려는 성향(Social Desirability)'으로부터 자유로워 다양한 분야의 행동시간연구에 활용되고 있다(Robinson and Godbey, 1997; 손문금, 2010; 차승은, 2010).

본 연구는 5년간의 시차를 두고 수집된 대표성 있는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한국인의 인터넷 이용시간에 대한 보다 신뢰성 있는 분석을 시도한다.

분석의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정보격차연구의 관심의 전환과 관련이 있다. 초기의 정보격차관련 연구가 이용자들 간의 인터넷행위의 동질성(Nie and Ebring, 2000)을 전제로 접근의 문제에 주목한 반면에, 이후의 연구들은 같은 인터넷 이용자들 간의 인터넷 이용의 차이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

는, 정보지향적인 행동인 '컴퓨터를 이용한 검색'과 오락지향적인 행위인 '게임 시간'에 미치는 여러 변인들의 영향을 특히 교육과 소득, 성별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며 살펴볼 것이다. 둘째, 첫 번째 쟁점과 관련되어 있는 기술혁신의 확산과 따른 정보격차의 추이에 따른 쟁점이다. 정보격차에 관한 낙관적인 입장이 정보화의 진행에 따라 정보격차가 감소될 것을 예상하는 바와 달리, 일부의 비관적인 입장은 인터넷 및 정보통신기술의 개별화된 특성으로 인해 정보화의 진행에도 불구하고 정보격차는 상존하거나 오히려 심화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Norris, 2001). 이러한 논의를 전제로 사회경제적 지위와 성별요인에 따른 인터넷 이용행태의 차이가 심화되었는지 아니면 감소되었는지를 확인하고자 할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분석의 배경에 대해 보다 상세히 논의할 것이다. 3장에서는 자료의 성격과 변수의 특성에 대해 설명한 후, 분석결과가 4장에 제시될 것이다. 연구결과에 기반한 논의와 연구의 한계가 5장에 제시될 것이다.

II. 기존연구의 검토 및 연구문제의 설정

1. 정보격차: 접근에서 이용으로

정보격차에 대한 학문적·정책적 관심은 인터넷 등 새로운 정보기술의 도입이 유발할 수 있는 새로운 불평등의 양상을 줄이고자 하는 지향에서 출발한다. 즉, 새로운 기술의 도입이 기존의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시키기 보다는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컴퓨터와 인터넷의 도입을 통해서, 많은 유용한 정보는 더욱 쉽게 검색되고 저장될 수 있으며, 정치적·사회적 참여의 비용은 획기적으로 감소할 여지가 발생하였다. 또,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은 공간과 시간을 넘어선 사회적 소통을 보다 용이하게 하였다. 쟁점은 새로운 기술의 도입에 의한 혜택이 교육이나 소득 등 다양한 사회적 자원을 이미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로 전유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노리스는 인터넷이 기존체제에서 사회적으로 배제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대안적인 정치참여의 기회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정치참여는 많은 경우에 이미 정치적으로 활발히 참여하는 사람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Norris, 2001).

초기의 정보격차(Digital Divide)에 관한 연구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자(에 접

근할 수단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의 격차)와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는 이들 간의 이분법적 구분에 주력하였다. 컴퓨터와 인터넷 접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절대적인 수와 성, 연령, 소득, 교육수준 등에 따른 변이에 관심을 가진 것이다).

이러한 양적 접근에 관한 연구들에 따르면, 미국 및 서구의 발전된 국가에서는 21세기에 들어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별의 차이는 더 이상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연령 및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접근격차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Van Dijk, 2006), 상대적으로 소득과 교육의 효과가 강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2005년의 전체 국민의 인터넷 이용률이 70.2%이고 장애인, 농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평균이 24.9%로 약 45%의 차이를 보인데 반해, 2010년에는 전체 국민의 인터넷 이용률은 78.3%, 취약계층의 그것은 44.3%로 약 30%가 넘는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비교는 접근격차의 측면에서의 정보격차는 감소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²⁾. 정보격차 실태 지수자료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접근격차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소득이나 교육보다도 연령인 것으로 나타났다(정영호·이혜미, 2010).

접근격차에 대한 연구 및 정책적 노력은 그 일정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정보격차의 다차원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보편적 접근을 통해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³⁾은, 이용자 측면의 특성을 간과한 기술결정론적 관점이며, 공급자 관점의 편향이라는 것이다(Van Dijk, 2005; 박해광, 2003). 이러한 문제점은 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보다 심각한 것이 된다. 몰나(Molnar, 2003)는 정보기술의 확산단계에 따라 정보격차의 문제의식이 변화한다고 주장한다. 초기 도입기에는 접근 가능자와 불가능자의 격차인 정보 접근 격차가, 도약기에는 이용자와 비 이용자의 격차인 양적인 정보활용 격차가 문제시되면, 포화기에 이르면 이용자들 내부의 질적인 정보활용격차가 쟁점이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초기의 정보기술 이용자들이 특정한 사회경제적 및 인구학적 속성을 가진 상대적으로 동질적인 집단이었다면, 기술의 확

1) 이러한 개념적 정의 및 연구관심은 보편적 서비스의 전통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Dimaggio and Hargittai, 2001). 다시 말해, 전화를 지역에 관계없이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정책적 지향이 그대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2) 한국은 컴퓨터 보급률 인터넷 사용자 수 등으로 구성된 ICT 개발지수에서 전세계 159개 회원국 중 3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3) 이러한 관점은 일단 인터넷을 이용하지만 하면, 그 사용에는 커다란 차이가 없다는 나이와 에브리링(Nie and Ebring, 2000)의 연구결과에 의해 지지되었다.

산에 따라, 수적으로 증가한 이용자 집단 내부의 다양한 이질성, 혹은 이차적 정보격차(Second Level Digital Divides)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시된다는 것이다 (Atwell, 2001; Hargittai, 2002). 디마지오와 하지타이(Dimaggio and Hargittai, 2001)는 이러한 이용자 집단 내부의 차별성을 기술적 수단, 자율성, 기술, 사회적 지원과 목적에 따른 차이로 구분하고 있으며, 반다이크(Van Dijk, 2005)는 이러한 이용자 집단의 다양성을 동기적 차원, 기술적 차원, 이용의 차원의 연계성 속에서 해명하고자 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김문조·김종길(2002)은 정보격차의 차원을 정보접근성, 정보동원력, 정보의식의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다차원적인 정보격차에 대한 연구들은 인터넷 이용자들 내부의 동기와 기술, 활용시간 및 활동의 다양성 등의 차이를 분석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할 만한 측면은 기술의 다양성과 활동의 다양성에 관한 연구들이다. 기술의 다양성에 대해서, 반다이크는 '정보기술(Information Skills)'과 '전략적 기술(Strategic Skills)'이라는 개념적 구분을 제안한다. 정보기술은 컴퓨터 및 인터넷의 구조를 이해한 배경에서, 특정한 주제에 관한 정보를 발견, 선택, 평가하는 능력을 의미하며, 전략적 기술은 이렇게 발견된 정보를 자신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러한 개념적 제안에도 불구하고, 전략적 기술에 대한 연구는 극히 제한적이다.

2. 정보격차의 배경요인

1) 사회경제적 지위

본파델리는 상대적으로 동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전통적인 미디어와 달리,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이질적이며 잠재적으로 무제한적 이기'이며, 인터넷의 사용이 이전 미디어에 비해 보다 능동적이고 숙련된 이용자들을 필요로 한다는 것에 주목한다(Bonfadelli, 2002: 72). 따라서, 인터넷의 구체적인 활용은 보다 개별화된 수준에서 이루어지며, 구체적인 정보추구활동에 영향을 주는 주된 요인은 교육수준일 것이라고 예측한다. 실제로, 그는 높은 교육수준을 가진 이들은 검색 및 뉴스구독 등의 정보추구적인 활동과 금융거래 등의 서비스 목적의 인터넷 활용이 많은 반면, 교육수준이 낮은 이들은 게임 등 오락의 목적으로 인터넷을 활용하는 경향이 강함을 보여주고 있다. 하워드와 동료(Howard,

Rainie and Jones, 2001)의 연구와 매든(Madden, 2003)의 연구 역시 높은 교육 수준과 정보추구적인 활동 그리고 서비스 지향적인 활동과의 관련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 하지타이와 힌넨트(Hargittai and Hinmann, 2008)는 집에서의 컴퓨터 사용여부 및 사용기간, 직장에서의 컴퓨터 사용의 자율성 등의 요인과 함께, 교육 수준이 개인의 인터넷 정보기술에 미치는 주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한편, 뉴스, 선거, 건강 및 금융정보, 정부 사이트, 그리고 생산품 관련 정보 사이트 등 7개의 '자본증진적(Capital Enhancing)' 사이트에 대한 방문 역시 교육수준에 의해 영향 받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 연구들은, 인터넷 이용자들의 인구학적, 사회경제적인 속성에 따라 인터넷 이용형태의 차이가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 중 교육수준과 정보추구 활동 간의 정적인 관련을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다. 국내의 연구들은 주로 한국정보화진흥원(구 정보문화진흥원)에서 조사한 '정보격차 지수 및 실태조사'의 자료에 기반해 있다. 국내 연구들은 (심상완·김정석, 2001; 김태일·이경희·이재웅, 2007; 김은정·이재웅·양희인, 2008; 정영호·이혜미, 2010) 이들 자료를 기반으로 한 활용역량, 양적활용 및 질적활용지수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김태일 외(2007)의 연구에 따르면, 연령에 따른 정보격차가 가장 크게 존재하고, 교육수준과 직업 및 소득수준 등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정보격차의 정도가 그 뒤를 이었으며, 성별 및 거주지역에 따른 차이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이용역량 및 활용전반에 대해 분석했을 뿐, 구체적인 활동에 대해 분석하고 있지 않다. 다시 말해, 다양한 요인에 따른 활용의 폭을 분석했을 뿐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구체적인 행동정도, 특히 정보지향적 활동 및 오락지향적 활동의 종사정도 등의 차이는 현재까지의 연구에서는 체계적으로 밝혀지고 있지 못하다.

2) 성별차이

대부분의 새로운 기술의 도입 초기에 이러한 기술을 처음 도입하는 이들은 대체로 젊고, 높은 교육수준을 지닌 남성들이다(Norris, 2001). 인터넷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1990년대 중반까지의 인터넷 도입에 관한 성별차이를 연구한 연구들은 여성이 남성에게 비해 인터넷에 접속하는 비율이 낮고, 컴퓨터 및 인터넷에 대해 낮은 자기효능성(self-efficacy)과 높은 정도의 컴퓨터 불안을 경험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Bimber, 2000; Durndell, Hagg and Laithwaite,

2000). 이러한 성별 정보격차의 원인으로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을 지적할 수 있다. 하나는, 사회경제적인 요인으로 여성이 상대적으로 교육수준이나 소득수준이 남성에 비해 낮음으로서 인터넷에 접속할 가능성이 낮고, 남녀별 전공의 차이나 직장에서의 컴퓨터 작업의 숙련도의 차이로 인해 여성이 남성에 비해 인터넷에 대한 숙련 및 효능감이 남성에 비해 낮다는 주장이다. 또 다른 일군의 주장은 성-특정적(gender specific)인 인터넷의 특성을 강조한다. 일련의 입장은, 인터넷이나 컴퓨터 관련 종사자가 대부분 남성이기 때문에, 이러한 남성의 가치가 인터넷 기술 자체에 제도화되어 있다고 주장한다(Green, Owen and Pain, 1993). 이와 관련된 다소 경험적인 주장은, 인터넷 상의 콘텐츠 자체가 남성을 위한 것이 많고, 인터넷 상의 상호작용 역시 성인지향적이며, 전형적인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시키는 패턴인 경우가 많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2000년경에 들어서서는, 인터넷 접근에 있어서의 남녀 차이는 그 사회경제적 차이를 고려하면 더 이상 발견되지 않으며(Bimber, 2000; Norris, 2001; Losh, 2004), 2002년을 넘어서면 사회경제적 지위를 고려한 상태에서는 여성의 인터넷 접근율이 남성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경우도 다소 시차는 있지만 비슷한 경향이 발견된다. 정부문화진흥원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사회경제적 지위를 통제한 상태에서 남녀 간의 정보접근지수의 차이는 2007년부터 통계적 유의도를 상실하였다(정영호·이혜미, 2010).

그러나 인터넷 접근에 있어서 남녀격차가 사라진 것이, 남녀의 인터넷 이용빈도나 시간, 패턴의 차이까지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빔버(Bimber, 2000)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인터넷을 매일 사용하는 비율이 높은 등보다 인터넷 이용빈도가 높다는 것을 보였다. 오노와 자보드니(Ono and Zavodny, 2003)는 마찬가지로, 접근격차가 사라진 상황에서도, 남성이 여성에 비해 보다 다양한 종류의 인터넷 활동에 종사하며, 보다 빈번히 인터넷을 이용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와서만과 리치몬드-애봇의 연구(Wasserman and Richmond-Abbott, 2005)도 기본적으로는 위의 두 연구의 결과를 재확인하면서도, 여성이 남성에 비해 취미관련 사이트는 더 자주 접속하는 반면, 오락지향적 사이트는 덜 방문하는 것을 보여, 성별에 따른 인터넷 이용형태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연구를 선택적으로 살펴보자. 2001년을 기준으로 할 때, 남녀 간의 정보화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적음에도 불구하고, 정보접근과 이용의 격차는 남성의 80% 미만에 달하는 상당히 큰 차이를 보였다(정숙경, 2003). 이러한 원인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윤영민(2000)은 전업주부의

낮은 인터넷 접근률이 남녀 간의 커다란 격차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윤영민, 2000; 정숙경, 2003). 한편 김수정(2009)은 남녀 노동자들 간의 직종별 인터넷 이용 형태를 분석하면서, 사무직종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인터넷 이용이 약간 활발하지만, 생산직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약 3배 더 활발하여, 인터넷 이용률과 이용시간에 있어 남녀 간의 성별이용격차가 생산직 부분에서 더 큼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정보문화진흥원에서 수집한 정보격차 지수 및 실태조사를 시계열적으로 비교한 정영호·이혜미(2010)는 앞서 언급한대로 2007년 이후부터 접근의 남녀격차는 사라졌지만, 여전히 이용 및 역량의 격차는 여전히 존재하고, 역량의 격차는 오히려 2008년 이후부터 증가하는 경향도 발견된다. 한편, 성별에 따른 이용정도 및 이용성향의 차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제시하고자 한다.

- 연구문제 1 :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인터넷 이용행태의 격차가 존재하는가?
 연구문제 1-1: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인터넷 이용빈도의 차이가 존재하는가?
 연구문제 1-2: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인터넷 이용의 다양성의 차이가 존재하는가?
 연구문제 1-3: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인터넷 이용성향의 차이가 존재하는가?
 연구문제 2 : 성별에 따른 인터넷 이용행태의 격차가 존재하는가?
 연구문제 2-1: 성별에 따른 인터넷 이용빈도의 차이가 존재하는가?
 연구문제 2-2: 성별에 따른 인터넷 이용의 다양성의 차이가 존재하는가?
 연구문제 2-3: 성별에 따른 인터넷 이용성향의 차이가 존재하는가?

3. 정보화의 확산과 정보격차의 추이

노리스(Norris, 2001)는 정보기술의 확산에 따른 정보격차의 지속여부에 대해 두 가지 대립적인 입장을 정리한다. 낙관론적 입장, 혹은 정규화(normalization model)는 새로운 기술의 도입 시기에 이러한 기술 채택의 집단 간 차이로 인해 불평등이 발생하지만, 점차 뒤쳐진 집단이 앞서간 집단의 수준을 따라가 최종적으로는 같은 목적지에 도달한다는 일반적인 기술확산이론에 근거하여, 정보격차의 문제가 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사라질 것으로 예측한다. 기술확산에 따

라 그 가격이 낮아지고, 사용이 보다 기술적으로 용이해지게 되며, 인터넷 콘텐츠도 보다 대중의 기호에 맞춰지게 됨에 따라, 인터넷 역시 다른 매체와 마찬가지로 보다 일반적인 대중에게 확산되게 된다는 것이다. 정보격차의 비관론, 혹은 계층화(stratification) 모델은 기존의 기술과 구별되는, 인터넷의 다용도성과 다기능성 그리고 행위자의 개별화된 선택의 가능성에 주목한다. 다시 말해, 모든 대중에게 상대적, 동질적으로 사용되는 여타의 기술과 달리, 인터넷은 그 자체로 매우 다양한 목적을 위해 쓰일 여지가 있으며, 이러한 가능성 중 어떤 것을 선택하여 전유할지는 개별적인 행위자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크다는 점에 주목한다. 대중매체와는 달리 정보기술의 경우는 새로운 기술적 혁신이 지속적으로 일어남에 따라, 정보화가 확산될수록 서로 다른 이해와 욕구 그리고 결정적으로 다른 수준의 기술수준을 가진 이들 간의 차이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임을 비관론자들은 주장한다는 것이다.

정규화모델과 계층화모델은 정보화의 확산에 따른 정보격차의 추이에 대해 전혀 다른 예측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경험적 검증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본 연구는 생활시간자료의 시계열적 비교를 통해 성, 연령, 교육 등의 인터넷 이용행태의 차이가 5년간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 3 : 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인터넷 이용격차의 정도는 심화되는가? 아니면 감소하는가?

연구문제 3-1: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인터넷 이용격차는 심화되는가? 혹은 감소하는가?

연구문제 3-2: 성별에 따른 인터넷 이용격차는 심화되는가? 혹은 감소하는가?

연구문제 3-3: 연령에 따른 인터넷 이용격차는 심화되는가? 혹은 감소하는가?

Ⅲ. 연구방법

1. 자료 및 변수

1) 자료

본 연구의 자료는 통계청에서 2004년과 2009년에 실시한 생활시간조사 자료

이다(Korean Time Use Survey, 이하 KTUS). KTUS는 한국인들의 생활시간을 보다 엄밀히 측정하기 위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1999년 처음 수집된 이래 매 5년마다 시행되고 있다. 표본은 다단계층화집락표집법에 의해 추출된 전국을 대표하는 가구이며, 가구에 거주하고 있는 10세 이상의 모든 가구원의 생활시간을 이틀에 걸쳐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의 컴퓨터 이용형태와 자녀의 컴퓨터 이용행태를 동시에 살펴볼 수 있는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한 자료이다. 또, 시간일지라는 도구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컴퓨터 이용실태를 그 행동시간의 측면에서 가장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2004년 KTUS는 총 31,634명의 행위자로부터 63,268일간의 생활일지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2009년 KTUS는 20,263의 행위자로부터 40,526개의 생활일지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8세 이상의 성인들만을 분석하고자 하였다⁴⁾. 행위자 단위의 분석에서는 이들이 제공한 생활시간일지를 모두 활용하였으며, 행동시간량에 대한 분석에서는 이들 중 이틀째의 생활시간일지만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선택의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으로 응답자들이 생활시간일지의 작성에 적응되어 이틀째의 생활시간일지가 보다 충실하다. 둘째, 상대적으로 큰 사례수를 감안하여 다소 보수적으로 통계적 유의도를 검증하고자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2004년 조사의 27,081명, 2009년 자료의 17,056명 등 총 44,137명의 시간일지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2) 변수

(1) 종속변수

2004년 KTUS는 총 2009년 KTUS는 전체 144개의 소분류 행동체계를 사용하고 있다. 이 중 컴퓨터 게임, 컴퓨터를 이용한 검색, 컴퓨터를 이용한 교제 및 기타 컴퓨터 사용의 4개 소분류활동이 명확하게 컴퓨터 및 인터넷을 이용한 활동이다. 2009년 자료에서는 3개의 무점포쇼핑(홈쇼핑 및 인터넷 쇼핑) 항목을 추가하였는데, 무점포쇼핑 코드는 참여율 및 행동시간량이 극히 미미할 뿐 아니라, 분석적으로 홈쇼핑 및 인터넷 쇼핑을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분석에서 배제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기존연구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인터넷 이용의 세

4) 10세에서 17세까지의 컴퓨터 이용에 대한 생활시간일지에 대한 연구로는 정재기(2007)와 정재기(2011)가 있다.

측면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첫 번째 종속변수는 '인터넷 이용빈도로, 행위자가 조사된 이틀 동안 컴퓨터 관련 행동을 며칠이나 하였는가를 측정하는 것이다. 컴퓨터를 매일 이용하는 행위자와 그렇지 않은 행위자 그리고 비사용자를 구분하였다. 이러한 분류는 일반적으로 컴퓨터 및 인터넷을 자주 사용하는 행위자들을 매일 사용하는 행위자로 규정하는 연구를 따른 것이다(Bimber, 2000).

두 번째 종속변수는 행위자들의 인터넷 관련활동의 포괄성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틀간의 생활시간일지에서 총 몇 개의 컴퓨터 관련활동이 보고되었느냐를 측정하였다. 2004년의 경우에는 최대 3개까지의 행동이 보고될 수 있으며, 2009년의 경우에는 최대 4개까지의 컴퓨터 관련활동이 보고될 수 있다. 행위자가 이틀에 걸쳐 같은 인터넷 관련활동을 보고하였을 경우에는 하나의 컴퓨터 관련행동으로 간주하였다. 2004년과 2009년의 인터넷 관련 코드의 수가 다르다는 점 때문에 행동수를 종속변수로 삼는 것보다는 복수의 행동을 보고한 이를 하나의 범주로 묶어 인터넷 비상용자, 단일행동 사용자, 복수행동 사용자로 나누어 분석에 사용하였다.

세 번째 종속변수는 개별적인 인터넷 관련활동의 행동시간량이다. 본파델리(Bonfadelli, 2002)와 피터와 발켄버그(Peter and Valkenburg, 2006)에 따라 정보지향적 인터넷 이용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검색시간을, 오락지향적 인터넷 이용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컴퓨터 게임시간에 대한 행동시간량을 측정하였다.

(2) 독립변수

일반적으로 정보격차관련 연구는 성, 연령, 지역규모와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컴퓨터 이용여부 및 이용형태의 변이에 관심을 갖는다. 이 중 본 연구의 주된 관심이 되는 것은 사회경제적 지위와 성의 효과이다. 행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교육과 가구의 월평균 소득에 의해 측정하였다. 가구소득은 가구원의 소득을 합산하였다. 본인의 교육은 현재 대학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만 25세 이하의 응답자의 경우에는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를 졸업하는 것을 최종학력으로 하였으며, 그 이상의 연령자의 경우에는 현재 취득한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범주변수이기 때문에 가변수화하여 분석하였으나, 결과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연속변수로 간주하여 분석에 사용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한편, 정보화의 확산에 따른 인터넷 이용행태의 전반적인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연도변수를 추가하였다. 또, 다양한 속성에 따른 인터넷 이용격차의 차이

를 검토하기 위하여, 연도변수와 다양한 독립변수간의 상호작용항을 분석에 포함하였다.

3) 연구방법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세 개의 범주의 종속변수 두 가지와 행동시간량이다. 예비적인 분석의 결과, 인터넷 이용빈도에 대한 분석은 다항로지회귀분석과 서열회귀분석간의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서열회귀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한편, 인터넷 이용의 포괄성에 대해서는 다항로지회귀분석을 시도하였다.

특정행동에 종사하지 않은 이들이 많을 때, 이들 행동의 이용시간에 대해서는 토빗회귀분석이 선호된다(Long, 1997; 정재기, 2011). 그러나, 분석결과에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동시간량에 대한 분석에서는 일반최소자승법에 의한 회귀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IV. 분석결과

<표 1> 표본의 성격: 2004년과 2009년

연도(사례수)	연령	여성비율	가구소득(월)	농가비율(%)	대졸자비율(%)
2004(27081)	42.94	52	228.91	8	22.7
2009(17056)	45.00	51	298.90	7	24.3

<표 1>은 2004년과 2009년의 전체 표본의 성격을 연령, 성별, 농가여부, 교육 및 가구소득의 관점에서 비교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연령과 (명목)가구소득, 그리고 대졸자 비율은 증가하였으며, 농가비율과 여성비율은 약 1% 정도 감소하였다. 이들 표본의 성격의 변화는 5년간의 한국사회의 변화의 흐름과 일관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표 2> 인터넷 이용행태의 비교: 2004년과 2009년

	인터넷 이용빈도			활동수 (행위자기준)	컴퓨터 게임시간(분)	검색시간(분)
	매일이용(%)	이용(%)	비이용(%)			
2004	18.3	16.2	65.5	1.24	10.2	10.8
2009	18.6	18.7	62.6	1.27	13.8	10.6

<표 2>는 인터넷 이용빈도, 이용의 다양성, 구체적인 인터넷 행동시간량을 두 년도에 걸쳐 비교하고 있다. 먼저 시간일지 조사기간 동안 인터넷 이용 행동을 보고하지 않은 행위자는 2004년 65.5%에서 62.6%로 감소하고, 이들 중 하루의 시간일지에 인터넷 이용 행동을 보고한 이들의 비율은 16.2%에서 18.7%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매일 인터넷을 이용한 18세 이상 성인의 비율은 큰 차이가 없었다. 한편, 활동의 다양성 역시 증가하였다. 전반적인 활동 수도 증가하였으며(표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으나), 두 개 이상의 인터넷 활동을 보고한 이들이 전체 표본 중 5.6%에서 6.5%로 증가하였다. 컴퓨터 게임 시간의 감소폭이 3분 정도였으며, 검색시간은 커다란 변화가 없었다($p=.502$). 이러한 결과는 전반적으로, 변화의 폭은 그다지 크지 않지만, 인터넷 이용빈도와 인터넷 포괄성이 증가하는 등 전반적으로 인터넷이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다양한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3> 컴퓨터 이용빈도에 대한 서열회귀분석의 결과

(N=44137)

	모형 1		모형 2		
	계수	유의도	계수	유의도	
범주 1	-1.157(0.12)	.000	-1.316(.13)	.000	
범주 2	.039(0.12)	.748	-.118(.13)	.349	
변수	연령	-.080(.00)	.000	-.085(.001)	.000
	여성	-.742(.02)	.000	-.670(.029)	.000
	교육	.396(.01)	.000	.399 (.01)	.000
	가구소득	.000(.00)	.122	.000(.00)	.110
	비농가	.391(.06)	.000	.388(.06)	.000
	2009년	.240(.02)	.000	-.147(.08)	.069
상호작용	연도*성			-.181(.05)	.000
	연도*연령			.013(.04)	.000

<표 3>은 이들 중 컴퓨터를 이용한 날짜를 종속변수로 한 서열회귀변수의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모형 1은 양년도의 표본을 대상으로 한 후 연도변수를 추가하였다. 소득을 제외하고 모든 변수가 컴퓨터를 이용한 날짜에 영향을 미침을 보여주고 있다. 교육수준이 높고 연령이 낮을수록 컴퓨터를 이용한 날짜가 증가하고 있다. 또, 농가에 거주할수록, 여성이 남성에 비해 컴퓨터를 이용한 날짜가 상대적으로 적다. 마지막으로 연도변수의 효과는 다른 속성이 같을 때, 2004년에 비해 2009년에 컴퓨터를 이용한 날짜가 하루 증가할수록 우도비가 1.24배(=exp(.240))임을 보여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인터넷은 2004년에 비해

2009년에 비해 자주 이용되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

한편 모형 2는 연도와 다양한 관련요인과의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한 후 그 중 유의미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연도와 성, 연도와 연령과의 상호작용효과가 발견되었다. 계수의 방향을 검토해보면, 성별 차이는 2009년이 2004년에 비해 더 커 오히려 5년의 기간 동안 컴퓨터 사용일 수에 있어서의 남녀차이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령의 효과는 2009년이 줄어들어 컴퓨터 사용일 수의 연령별 격차는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해, 모형 2의 격차는 연령별 이용격차는 다소 감소했지만, 성별 이용격차는 오히려 증가했음을 의미하고 있다.

인터넷 이용행위의 다양성을 측정하기 위해, 총 4개의 생활시간 행동분류 중 이틀에 걸쳐 보고된 행동의 수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다항회귀분석(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을 시도하였다. 단수행동 사용자와 복수행동 사용자를 구분하기 위한 목적상, 단수행동 사용자를 준거집단으로 한 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4>에 제시되고 있다.

<표 4> 컴퓨터 이용의 다양성에 대한 다항로지트 회귀분석결과

(N=44137)

비사용/단일행동이용 (준거: 단일행동)		모형 1		모형 2	
		계수	유의도	계수	유의도
변수	연령	.068(.00)	.000	.068(.00)	.000
	여성	.628(.03)	.000	.552(.03)	.000
	교육	-.351(.01)	.000	-.352(.01)	.000
	가구소득	.001(.01)	.856	.001(.01)	.861
	비농가	-.417(.07)	.000	-.416(.07)	.000
	2009년	-.151(.03)	.000	-.240(.04)	.000
상호작용	연도*성			.199(.05)	.000
복수행동/단일행동(준거: 단일행동)					
변수	연령	-.028(.00)	.000		
	여성	-.313(.05)	.000		
	교육	.125(.02)	.000		
	가구소득	-.075(.01)	.000		
	비농가	-.201(.12)	.099		
	2009년	.188(.05)	.000		

모형 1은 기본적인 관련변인 외에 연도변수만을 추가한 모형이다. 분석결과는 여성, 고연령, 농가주거, 저소득의 속성이 인터넷 이용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은 비이용자와 단일행동 이용자사이의 예측에는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변수가 아니었다.

한편, 단일행동 사용자와 복수행동 사용자 사이의 비교에서는 여성에 비해 남성이,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두 개 이상의 인터넷 관련활동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았다. 의외로, 소득이 높을수록 오히려 인터넷 관련 하나의 행동만을 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농가여부는 단일행동 사용자와 복수행동 사용자를 예측하는 데는 유용하지 않았다. 조사연도 변수는 두 개의 회귀식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즉, 같은 속성을 가진 행위자라면 2004년에 비해 2009년에 비이용자보다는 단일행동 사용자가 될 확률이 높고, 단일행동 사용자보다는 복수행동 사용자가 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전반적으로 행위자들의 인터넷 관련 행동의 다양성이 증가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연도와 다른 속성과의 상호작용항의 결과를 보여주는 모형 2는 비이용자와 단일행동 사용자 사이의 비교에서 연도와 성의 유의미한 상호작용항이 발견되었음을 보여준다. 다른 속성이 같은 남성에 비해 여성이 비이용자가 될 우도비는 2004년에는 1.8(=exp(.597))배 높았으나 2009년에는 2.3(=exp(.597+.265))배 높아, 행동의 다양성에 있어서 남녀 간의 인터넷 이용격차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일행동 사용자와 복수행동 사용자를 비교할 때에는 이러한 상호작용효과가 발견되지 않았다.

<표 5> 검색시간과 컴퓨터 게임시간에 대한 일반회귀분석결과

(N=44137)

게임시간		모형 1		모형 2	
		계수	유의도	계수	유의도
변수	연령	- .722(.02)	.000	-.785(.02)	.000
	여성	-14.156(.41)	.000	-14.153(.41)	.000
	교육	-1.300(.23)	.000	-1.273(.23)	.000
	가구소득	-.020(.00)	.000	-.019(.00)	.000
	비농가	-.676(.77)	.382	-.784(.77)	.311
	2009년	-.701(.43)	.100	-7.849(1.2)	.000
상호작용	연도*성			.161(.03)	.000
검색시간					
변수	연령	-.312(.01)	.000	-.331(.01)	.000
	여성	-1.776(.29)	.000	-1.101(.38)	.003
	교육	4.938(.16)	.000	5.302(.20)	.000
	가구소득	-.007(.00)	.000	-.006(.00)	.000
	비농가	-.688(.55)	.213	-.747(.55)	.177
	2009년	.371(.30)	.223	1.285(1.6)	.429
상호작용	연도*연령			.049(.02)	.030
	연도*교육			-.943(.32)	.003
	연도*성			-1.723(.60)	.004

<표 5>는 컴퓨터 게임시간과 검색시간에 대한 토빗회귀분석의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 두 행동만을 분석하는 이유는 이 행동이 각각 정보지향적인 인터넷 이용과 오락지향적인 인터넷 이용을 대표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우선, 컴퓨터 게임시간에 대한 분석결과 중 모형 1의 결과를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그리고 여성이 비해 남성이 더 컴퓨터 이용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에 거주하는 것은 컴퓨터 이용시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며, 다른 변수를 통제하였을 때, 연도별 변수의 효과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한편, 모형 2는 연도변수와 연령의 상호작용항의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보여주고 있다. 상호작용항의 계수는 2004년에 비해 2009년에 연령의 부적인 효과가 감소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컴퓨터 게임시간에 있어서 연령별 격차가 상대적으로 작아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편, 검색시간에 대한 분석결과는 교육수준과 소득이 높을수록 검색시간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기존의 인터넷 사용격차에 대한 분석결과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고 있다. 또 여성에 비해 남성이 검색시간이 많았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검색시간이 증가하였다. 농가여부는 검색시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한편, 모형 2는 연도와 다른 속성과의 다수의 상호작용이 통계

적으로 유의미함을 보여주고 있다. 상호작용항의 계수에 주의해서 결과를 살펴 보면, 주 효과의 항과 상호작용항의 계수의 방향이 다른 연령과 교육의 경우, 검색시간에 대한 격차가 2004년에 비해 2009년이 감소했음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 남성과 여성의 검색시간의 차이는 2004년에 비해 2009년에 더욱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정보지향적 인터넷 이용에 있어서의 성별 이용격차는 오히려 증가한 것이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인터넷 이용빈도, 인터넷 이용의 다양성 그리고 검색과 컴퓨터 게임의 행동시간량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2004년과 2009년 사이의 기간 동안 한국인들의 인터넷 관련활동의 변화를 파악하는 한편, 정보격차론의 관점에서 다양한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변수의 영향력의 변화를 추적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전반적으로 인터넷 이용 빈도는 증가하였으며 인터넷 활동의 다양성 역시 증가하였다. 다시 말해, 한국인들은 인터넷을 더 자주, 더 다양하게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교육과 소득으로 측정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검색시간이 증가하고, 컴퓨터 게임시간이 감소하는 패턴은 2004년과 2009년 공히 발견되어,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인터넷 이용격차가 한국사회에서도 발견됨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인터넷 이용의 빈도와 다양성이 전반적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별에 따른 인터넷 활용패턴의 차이는 오히려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이용의 성별격차는 전반적인 정보화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심화되었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행동시간을 연구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론인 시간일지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인들의 인터넷 이용시간을 체계적으로 점검한 연구이다. 또, 두 개 연도를 비교함으로써, 접근이 아닌 이용의 측면에서 시계열적 비교를 시도한 연구라는 점에서 정보격차에 관한 연구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정보격차론의 관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해보면, 정보화의 진행정도가 높은 한국사회에서,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인터넷 이용성향의 차이, 다시 말해, 이용격차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다수의 서구 연구들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정보지향적(Koivusilta, T.P., Lintonen and Rimpela, 2007) 혹은 자본증진적(Dimmagio and Cohen, 2005)으로 인터넷을 사용하고,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오락지향적 혹은 행복추구적인 목적을 위한 인터넷 이용경향이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한국의 맥락에서 대표성 있는 생활시간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이러한 경향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결과의 의미가 있다. 한편, 성별 이용격차는, 접근격차가 사라진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존재하며, 오히려 더욱 심화되는 경향마저 발견하였다. 이러한 심화의 원인을 살피는 것은 본 연구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존의 논의와 관련하여, 이러한 성별격차의 지속 및 심화는 전업주부를 제외한, 취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도 여전히 확인되고 있다는 것을 밝혀두고자 한다.

한편, 다양한 속성에 따른 인터넷 이용격차를 연도별로 비교함에 따라, 정보화의 확산과 정보격차 간의 관계에 대한 정규화론과 계층화론을 경험적으로 검증해보고자 하였다. 이용빈도의 측면이나, 컴퓨터 이용시간의 측면에서 볼 때 2004년에 비해 2009년의 연령별 인터넷 이용격차가 감소하고 있어 정규화론을 지지해주고 있다. 이에 반해, 성별 이용격차는 인터넷 이용빈도나 인터넷 활동 다양성에 있어서 오히려 증가하여 계층화론을 지지하고 있다. 또,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격차는 상대적으로 큰 표본크기에도 불구하고 두 조사연도에 따른 유의미한 통계적 차이가 오직 검색시간에서만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 역시 정보화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이용격차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계층화론을 지지하는 결과인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다른 자료와의 체계적인 비교(남은영·최유정 2008), 또 조사연구 연도의 축적을 통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생활시간조사는 국민의 일반적인 시간활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인터넷 활동에 대해서 제한적인 수의 행동분류코드만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 이용행동의 다양한 목적 및 맥락 그리고 이들이 방문한 사이트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담고 있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다. 그들의 주된 목적이 '자본증진적'인 것인지 '행복추구적'인 것인지에 대한 매우 엄밀한 분석을 위한 자료로는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자료의 또 다른 한계로는, 행위자들의 자유시간 내에서 행해지는 인터넷 활용만을 조사했을 뿐, 직장에서 행해지는 인터넷 관련활동에 대한 정보는 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시간일지에서 대부분 직장에서의 노동시간에 대한 보고는 그 구체적인 맥락을 포함하지 못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시간일지를 통해 직장에서의 인터넷 이용활동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얻기는

5) 예를 들어, 정보격차지수를 분석하여 시계열적 비교를 시도한 정영호·이혜미(2010)에 따르면, 연령별 이용격차역시 일관된 경향을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다.

힘들다(정재기, 2008).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이윤석·김규성·이희길·심수진(2009)의 연구는 스웨덴과 일본의 예를 참고하여, 모든 보고된 행동에 인터넷 활용여부를 조사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의 또 다른 한계로는 가정에서의 인터넷 접근여부에 대한 명확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발견되는 인터넷 이용격차는 접근격차와 이용격차가 함께 발현되어 나오는 결과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적어도 성별격차 및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이용격차의 문제에 대한 본 연구의 결과의 타당성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성별 접근격차가 거의 사라진 것으로 판단되는 2009년의 성별 이용격차가 더 크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성별 이용격차가 증대되었다는 본 연구의 발견이 성별 간 접근의 격차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명확하다. 또,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하여, 오락지향적 인터넷 이용은 오히려 소득과 교육수준이 낮은 이들에게 더욱 많이 발견되기 때문에, 이러한 접근격차가 인터넷 이용성향의 차이를 설명하는 데 기여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

〈참고문헌〉

- 김문조·김종길 (2002) “정보격차의 이론적, 정책적 제고” 《한국사회학》 36(4): 122-155.
- 김수정 (2009) 여성노동자 집단 간의 디지털 격차와 인터넷 활용의 특성 《한국언론학보》 53(2): 206-230.
- 김은정·이재웅·양희인 (2008) “우리나라 정보격차 실태와 정책적 함의: 2007년 정보격차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11(3):75-101.
- 김태일·이경희·이재웅 (2007) “정보 불평등 수준 및 영향요인 분석” 《한국정책학회보》 16(5): 223-247.
- 남은영·최유정 (2008) “사회계층 변수에 따른 여가 격차: 여가유형과 여가 및 삶의 만족도를 중심으로” 《한국 인구학》 31(3): 57-84.
- 박해광 (2003) “정보격차의 새로운 동향” 《경제와 사회》 59: 78-102.
- 손문금 (2010) “서울시민의 이동행동에 있어서의 젠더차이: 생활시간조사자료를 중심으로” 《한국 인구학》 33(1): 1-25.
- 심상완·김정석 (2001) “사회인구학적 배경에 따른 정보격차의 다원모형분석” 《한국 인구학》 24(2): 235-253.

- 유성용 (2008) “측정방법에 따른 노동시간의 차이: 자기기입식 질문법과 시간일
지법을 중심으로” 《한국 인구학》 31(1): 99-125.
- 윤영민 (2000) 사이버공간의 정치 서울: 한양대출판부.
- 이윤석·김규성·이희길·심수진 (2009) “생활시간조사 개선을 위한 방법론 제안”
《통계연구》 14(1): 46-62.
- 정보화진흥원(2010) <<정보격차지수 실태조사>>.
- 정숙경 (2003) “기혼여성의 인터넷 이용과 정보 불평등: 차별과 배제” 《한국여
성학》 19(2): 177-206.
- 정영호·이혜미 (2010) “다면적 정보 격차의 변화와 그 요인:2005년-2009년 시계
열 분석을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7 (3): 228-261.
- 정재기 (2007)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청소년의 컴퓨터 이용실태: 생활시간
자료를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4: 52-77.
- _____ (2008) “생활시간연구를 위한 측정도구의 비교: 경험표집법과 시간일지”
<<조사연구>> 9 (1): 43-68.
- _____ (2011)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실태: 생활시간
조사의 활용” <<한국사회학>> 45(5): 197-2253
- 차승은 (2010) “남녀의 시간압박인식 차이와 관련요인 탐색” 《한국 인구학》
33(1): 27-49.
- 행정안전부 (2010) <<국가정보화백서>>.
- Atwell, P (2001) “First and Second Digital Divides” *Sociology of education*
74(2): 252-259.
- Bimber, B (2000) “Measuring the Gender Gap on the Internet” *Social Science*
Quarterly 81(3): 868-876.
- Bonfadelli,H. (2002) “The Internet and Knowledge Gaps: A Theoretical and
Empirical Investigation” *European Journal of Communication* 17(1): 65-84
- Drundell, A., Hagg, Z and Laith Waite, H (2000) “Computer Self-Efficacy and
Gender: A Cross Cultural Study of Scotland and Romania”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8: 1037-1044.
- Dimmagio, P. and E.Hargittai (2001) From the ‘Digital Divide’ to ‘Digital
Inequality’: Studying Internet Use as Penetration Increases Working
Paper.
- Dimmagio, P. and J. Cohen (2005) “Information Inequality and Network
Externalities: A Comparative Study of the Diffusion of Television and the

- Internet” pp.227-267 in *Economic Sociology of Capitalism* Edited by Victor Nee & Richard Swedberg Princeton University Press New Jersey, U.S.
- Green, E., Owen, J. and Pain, D (1993) "City Libraries": Human-centred opportunities for women? in E. Green et al. (eds.) *Gendered By Design?* pp 127-152 London: Taylor and Francis.
- Hargittai, E (2002) "Second-level Digital Divides: Differences in People's On-line Skill" First Monday retrieved from <http://www.eszter.com/research/pubs/hargittai-secondleveldd.pdf>
- Hargatti, E and A. Hinnant (2008) "Digital Inequality: Difference in Young Adults' Use of the Internet" *Communication Research* 35(5): 602-621.
- Howard, P.N , L. Rainie, and S. Jones (2001) "Days and Nights on the Internet: the Impact of Diffusing Technology"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45(3): 383-404.
- Koivusilta, L.L, T.P. Lintonen, and A.H. Rimpela (2007) "Orientations in adolescents us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A digital Divide by Socioeconomic background, educational career, and Health." *Scandinavian Journal of Public Health* 35: 95-013.
- Lee, Y.S. and L. Waite (2005) "Husbands' and wives' time spent on housework: A comparison of Measur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7 (3): 328-336.
- Losh, S.C (2004) "Gender, Educational, and Occupational Digital Caps 1983-2002" *Social Science Computer Review* 22(2):152-166.
- Long, J.S (1997) *Regression Models for categorical and Limited Dependent Variables* Thousand Oaks Sage.
- Madden M (2003) *America's online Pursuit* Washington DC. Pew Internet and American Life Project.
- Molnar, S (2003) "The Explanation Frame of the Digital Divides" Available: [<http://www.cs.kau.se/IFIP-summer-school/proceedings/molnar.pdf>]
- Nie, N and L. Ebring (2000) *Internet and Society: A Preliminary Report* Stanford Institute for the Quantative Study of Society.
- Norris, P (2001) *Digital divide: Civic Engagement, Infromation Poverty, and Internet Worldwid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Ono, H and Zavodny M. (2003) "Gender and the Internet" *Social Science*

- Quarterly 84(1): 111-121.
- Peter, J and P. Valkenburg (2006) "Adolescents' Internet Use: Testing the "disappearing digital divide" versus the "emerging Digital Differentiation" Approach" *Poetics* 34: 293-305.
- Robinson J. and G. Godbey (1997) *Time for life: The Surprising Ways Americans Use Their Time*, University Park,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 Van Dijk, Jan A.G.M (2005) *The Deepning Divide: Inequality in the information Society* Thousand Oaks Sage.
- _____ (2006) "Digital Divide Research, Achievements and Shortcomings" *Poetics* 34: 221-235.
- Wasserman, I and M.Richmond-Abbott (2005) "Gender and the Internet : Causes of Variation in Acecess, Level and Scope of Use" *Social Science Quarterly* 86(1):252-271

Gender, Social Economic Status and Internet Use: Based on Time Diary Data

Jaeki Jeong

Based on two cross-sectional Time Diary data, this study examines the change in internet use pattern of Koreans. Building on the literatures on Digital Divides, it traces the changes in frequency, diversity and specific purpose of internet use and tries to identify factors affecting these changes. The results show that the frequency and diversity of internet use increases across five years. They also reveal that the usage gap in internet between genders increases. While the usage gap across social economic status still exists. The implication of these results are discussed.

Key Words: Internet, Time diary data, Digital divides, Game, Search